

조건문과 도상성(Iconicity)

김 정 일*

1. 서론

Peirce가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기호를 제시한 이래, 도상성은 그 개념상 양적, 질적 확장을 하게 되었다. Saussure (1916) 이후 강하게 주장되어온 언어의 자의성에 이의가 제기되며, Haiman (1980) 이후에는 언어의 도상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강조되어왔고, 언어형태와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어떤 대응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언어에서 여러 요소들의 순서는 물리적인 경험이나 지식의 순서와 유사하다”고 한 Greenberg(1966:103)의 언급과 같은 맥락에서 Jakobson(1971:347-349)은 중요한 요소들이 그 도상적 성격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며, 이러한 순서는 보편적인 경향을 띠며, 특히 조건문의 경우 조건절이 주절에 선행하는 것이 중립적이고 무표적인 어순이라고 밝히고 있다. Haiman은 언어 기호들의 선형성(linearity)이 무엇보다도 시간과 원인의 선형성을 도상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형적으로 If p then q의 구조를 가지는 조건문에서 p에 기술된 상황이 q에 기술된 상황에 대해 실제로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원인이 된다는 조건문의 이러한 특성은 Haiman이 지적한 동기 가설 차원의 도상성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도상성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조건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¹⁾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러시아어 조건문에서 조건절이 주절을 선행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도, 바

Johnson-Laird (1986: 67 -69)는 “If Elizabeth II abdicates, then some dogs have fleas.”라는 문장이 실제로 발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조건문 내에서는 조건절과 주절 사이에 어떤 종류의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는 그 관계가 우선적으로 시간적인 관계이고, 그 다음으로는 인과적 관계라고 밝히고 있다. Comrie(1986:80-85)는 두 절 사이에 가장 일차적인 관계는 인과적 관계이고, 두 절의 어순은 흔히 시간적 관계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1959:326-327)에서는 조건문이 흔히 시간성이나 인과성과 결합될 경우 흔히 *когда*나 *раз*로 대체된다는 언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언급은 *Дротбинас*(1959:32)에서도 발견된다. 모든 조건문은 아니더라도 특정 유형의 조건문을 시간성이나 인과성을 표현하는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이러한 전통적인 기술은 최근의 문법기술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1982, Золотова et al. 1998을 보라). 그러나 조건문에 등장하는 시간성과 인과성의 본질은 무엇인지, 시제문이나 인과문에 등장하는 시간성이나 인과성과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은 모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 조건문에서 시간성과 인과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조건문에서 표현되는 시간성과 인과성이 조건문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조건문의 분류

본 논문에서는 조건문에서 표현되는 시간성과 인과성의 문제를 조건문의 유형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건문에 표현되는 가설성의 유형 -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조건문을 분류할 때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의 가설성만을 고려한 것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주절에 표현된 상황의 가설성도 함께 고려할 것이며, 두 상황의 가설성 정도가 상이한 특수한 경우에는 주절에 표현된 상황의 가설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필자는 조건문에서 가설성은 조건절 뿐만 아니라 주절에서도 표현되며, 특히 주절에서 화자의 상황에 대한 태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가설성의 관점에서 러시아어 조건문을

로 이러한 시간성과 인과성 차원의 도상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크게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과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에서 비록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조건절에 가설성이 있는 상황이 표현되고 주절에서는 가설성이 없는 상황이 표현되거나, 조건절에 가설성이 있는 상황이 표현되고 주절에서는 가설성이 없는 상황이 표현되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유형의 조건문들은 가설성이 있는 유형의 조건문과 가설성이 없는 유형의 조건문의 경계부분에 분포하는 주변적인 경우의 예이며, 이런 경우에는 주절에 표현된 상황의 가설성의 여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으로, 후자의 경우는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으로 구분하였다.²⁾

Silva-Corvalán (1995:92)은 문장에 표현된 명제에는 기본적으로 “단언성(assertiveness)”의 정도가 표현되며, 시제는 그 정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양상적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단언성을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나 신념으로 규정하면서, 단언성의 정도는 가설성의 정도와 반비례한다고 보고 있다. 즉 단언성이 가장 큰 경우는 사실적(factual)인 명제이며 이러한 단언성은 과거 직설법과 현재 직설법을 통해 표현되고, 이보다 낮은 단언성, 즉 보다 높은 가설성은 미래 직설법을 통해, 그리고 최소화된 단언성, 즉 극대화된 가설성은 조건법을 통해 표현된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미래시제가 양상적 성격을 가지며, 특히 비현실성이나 가설성과 쉽게 결합될 수 있음은 Givón(1984), Bybee(1994)등에서 언급된 바 있다. 가설성의 낮고 높음이 화자가 표현된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언성의 낮고 높음과 반비례의 관계를 가진다는 Silva-Corvalán의 견해는 러시아 조건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을 단언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화자가 조건절에 자신이 잘 아는 상황을 표현하고 그 상황을 바탕으로 단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화자는 잠재적인 상황이나 대안적 세계를 표현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통사구조인 조건문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단언을 약화시킨다. 조건문이 약한 단언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조건문은 문장형식에 수반되는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외의 간접적 효과를 가지는 간접화행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³⁾ 필자는 이러한 유형의 조건문을

2) 조건문 분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정일(2002)의 2장과, 부록을 참조하라.

3) 화행이론에서는 주요 문장 유형들인 명령문과 의문문, 서술문은 각각 명령, 질문,

“기술적 조건문”으로 부른다. 그리고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의 또 다른 유형은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이 가지는 친숙성이 극대화되어 관례적 표현으로 고정된 경우로써, 표현된 명제의 의미적 특성은 완전히 상실하고 오로지 담화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유형의 조건문에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조건문”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⁴⁾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에서는 표현되는 명제의 진리치 여부에 대한 단언이 수반되는데 비해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에서는 표현되는 명제의 진리치 여부에 대한 단언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정도의 가설성을 표현한다. 아직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잠재적인 가설성이 표현되는 잠재적 조건문과, 이미 발생한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나,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비현실성이 표현되는 비현실적인 조건문이 그것이다. 잠재적 조건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설성을 표현하는 유형의 조건문이고, 비현실적인 조건문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설성을 표현하는 유형의 조건문으로서, 이들 둘은 형태상으로는 조사 *бы*의 유무에 의해 구분된다. 하지만 잠재성과 비현실성 사이에는 수많은 하부유형들이 다양한 가설성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 유형의 조건문에서 표현되는 가설성의 정도는 표현된 상황의 성격과, 그 상황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 맥락 등을 고려함으로써 판단될 수 있다.

3. 시간적 도상성

시간적 도상성은 현실에서의 시간관계가 그대로 조건문의 형식구조에 반영됨을 의미한다. Храковский(1996:195-203)는 조건절과 주절에 등장할 수 있는

서술의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를 가진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전형적인 발화수반력 이외에도 간접적인 발화수반력을 가질 때 간접화행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Can you close the door?와 같은 의문문이 요청의 발화수반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간접화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Searle (1975), Sperber & Wilson (1986)을 참조하라.

- 4)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조건문은 편의상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가지는 (a) 유형의 경우 기술적 조건문과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자주 있었으며, 이 경우 맥락이 그 구분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정일(2002 :55-58)을 보라.

시제 구조의 조합 54개를 설정하고, 각각의 경우를 시간축 위에 배치시켜 관찰한 바 있다. 그는 조건절에 표현된 시간이 주절에 표현된 시간과 동시적이거나, 혹은 앞설 수는 있어도, 주절에서 제시된 상황이 조건절에서 제시된 상황에 선행하는 경우는 없음을 보임으로써 조건문이 시간적 도상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러시아어 조건문에서 가능한 시상의 결합을 제시한 Чтемковская et al.(1988:261-278)⁵⁾도 주절에 표현된 상황이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보다 시간상 앞선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그들은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동사의 시상형태를 조건문에 표현된 시간적 도상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들 사이의 시간적 도상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러시아어 조건문에서 순차성과 동시성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시간관계가 표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밝힌 러시아어 조건문들의 각 유형에서 이러한 시간적 도상성, 즉 시간적 순차성이나 동시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

2장에서 밝혔듯이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은 표현된 상황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단언이 표현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 중에서도 가설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비현실적 조건문에서 시간적 도상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자. 비현실적인 조건문의 전형적인 예로써 조건절과 주절 모두에서 완료상 비과거가 사용된 다음의 예를 보라.

(1) - Нет, право забыл. Или я во сне видел? Постой, постой! Да что ж сердиться! Если бы ты, как я вчера, выпил четыре бутылки на брата, ты бы забыл, где ты лежишь. Постой, сейчас вспомню!

Петрицкий пошёл за перегородку и лёг на свою кровать.

- “아니야, 정말로 잊었는걸. 혹시 내가 꿈꾼 것 아닐까? 뭘 그렇게 화까지 내는 거야! 만일 네가 나처럼 어제 각자 네 병씩 마셨더라면, 너는 어디서 나가떨어졌는지도 몰랐을거야. 가만있어. 지금 기억이 나려고 해!”

페트리츠키는 간막히 벽 넘어 자기 침대에 가서 누웠다.

5) 물론 조건절에 부정사가 사용된 경우는 두 상황간의 상대적 시간성을 규정하기 어려우나, 부정사가 가지는 “탈시간성” “일반성”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논의를 제외하고자 한다.

(Анна Каренина: 198)

예문 (1)에서는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두 상황사이의 시간적 순차성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술을 네 병씩 마신 상황”은 “술에 취해 나가떨어진 상황”에 대해 명백히 선행하기 때문이다. 상황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순차성은 이 예문에서 주절과 조건절에 사용된 동사의 형태가 완료상이라는 점에 의해 더욱 더 확고하게 표현된다. 하지만 조건절에 불완료상이 사용된 다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적 순차성은 다소 약화된다.

(2) Родственники, обделенные наследством. Это уже интересно. Впрочем, нет, не очень. Если бы они имели отношение к убийству, они бы забрали ценности. Иначе само убийство теряет смысл.

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이라.... 흥미롭다. 하지만 아니야. 결코 아니야.

만일 그들이 살인과 관계가 있었다면, 그들은 귀중품을 가지고 갔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살인은 의미가 없는 일이니까...

(Иллюзия Греха 2001:10)

이 예문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피살자의 유품을 조사하던 경관이 사건현장에서 추론을 하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살인에 관여하여 살인을 한 후 귀중품”을 가져갔다고 이해할 경우 두 상황 사이의 순차성이 존재하지만, “살인과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이 “귀중품을 가져간” 상황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순차성보다는 오히려 동시성이 두드러지게 된다.⁶⁾ 이러한 해석의 모호성은 “살인과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이 상태적(state) 성격을 지닌 반면에 “귀중품을 가져간” 상황은 사건(event)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두 상황 사이의 명백한 시간적 선후 관계가 현실 세계 내에서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⁷⁾

조건절에 완료상이, 주절에 불완료상이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자.

(3) - Вдруг он что-то заподозрил или видел нас с тобой вместе и

теперь ищет повод, чтобы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соперником?

- Ой, Ну прямо-таки! - расхохоталась Вера. Повод ему нужен, как же.

Да если б он хоть краешком сознания что-то заподозрил, ты бы

6) 세명의 모국어 화자에게 문의한 결과 두명은 전자의 해석을 한명은 후자의 해석을 지지하였다.

7) 상태(state)와 사건(event)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omrie(1976:48-51)을 보라.

сейчас здесь не сидел.

- 갑자기 그가 의심을 하거나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서, 지금 자신의 연적과 인사하려고, 구실을 찾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 이런 그럴리가요! 베라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에게 구실이 필요하긴 하죠.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의심을 했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 앉아있지 못할거예요.

(Иллюзия Греха 2001: 108)

이 경우에도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인 “자신의 남편이 의심을 하지 않아서, (의처중에 걸린 남편이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의 정부가 아무 탈없이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일련의 상황들 사이에는 시간적 순차성이 존재하며, 이는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이 보여주는 과거성과, 주절에 표현된 *сейчас, здесь*와의 대조를 통해 보다 뚜렷하게 제시된다. 그러나 양쪽절 모두에서 불완료상이 등장하는 경우 순차성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동시성만이 뚜렷하게 부각됨을 알 수 있다.

(4) Она считает, что я мало ею занимаюсь, и **если бы я был к ней более внимателен, то мог бы успешно поставить её на ноги.**

그녀는 제가 그녀를 잘 돌보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그녀에게 좀 더 주의깊었더라면, 그녀는 두 발로 잘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겁니다.

(Иллюзия Греха 2001:154)

예문 (4)에서도 “그녀에게 좀 더 주의깊은” 상황과 “그녀가 두 발로 잘 설 수 있는” 상황사이에는 뚜렷한 순차성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예문 (2)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좀 더 주의 깊은” 상황은 상태적(state) 성격을 지니며, “그녀가 두 발로 잘 설 수 있는” 상황 역시 개인 능력에 대한 표현으로서, 상태적(state)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실제로 두 상황사이의 시간적 순차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2)와 (4)의 상황 모두에서 조건절에 표현된 상태적 성격의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주절에 표현된 사건적 성격의 상황이나, 혹은 상태적 성격의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 경우 둘 사이의 시간적 순차성은 두 상황이 교차하는 지점에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 교차하기 이전의 지점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전자의 경우라면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이 주절에 표현된 상황에 시간적으로 선행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두 상황은 동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들간의 이러한 다양한 성격은 그들을 표현하는 동사의 상 형태에 의해 표현상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비현실적인 조건문

의 경우 양쪽 절 모두 완료상이 사용될 경우가 가장 전형적으로 시간적 순차성이 뚜렷하게 표현되며, 어느 한쪽 절에만 완료상이 사용되는 경우는 이러한 순차성이 다소 약화되며, 양쪽절 모두에서 불완료상이 사용될 경우는 시간의 순차성은 더욱 모호해져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1)-(4)에서 보듯이 비현실적인 조건문에서는 표현되는 상황들간의 시간적 순차성이나 동시성은 현실에서의 두 상황사이의 시간적 순차성이나 동시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비현실적 조건문에서 표현되는 상황은 실제로 벌어진 상황과 거울이미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점은 뒷받침 될 수 있다.

비현실적 조건문보다 가설성이 다소 더 낮은 잠재적 조건문의 경우에도 현실에서 적용되는 시간적 순차성과 동시성은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내에 뚜렷하게 반영된다.

(5) Стоит копнуть чуть поглубже – и их окажется видимо-невидимо. Такие дела она не любила больше всего. **Если окажется, что часть ценностей Екатерины Бенедиктовны подменили, то версия о причинах убийства останется только одна, и нужно будет искать виновных среди огромной массы подозреваемых.** Это было скучно.

조금 더 깊게 파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잡힐 듯 말듯할 것 같았다. 그녀는 이런 일을 무엇보다도 싫어했다. 만일 **예카제리나 베네딕토프나**의 귀중품중 일부가 바뀌치기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살인의 원인에 대한 가설은 오직 하나만 남게 되며, 수많은 용의자들 가운데 범인을 찾지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일은 정말이지 지루한 일이었다.

(*Иллюзия Греха* 2001: 12)

이러한 순차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의 잠재적 조건문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6) Если же мы с тобой расторгнем свои браки и поженимся, то наш ребёнок будет расти в полной семье, а мои дети – нет.

만일 우리가 각각의 결혼생활을 파기하고, 둘이 결혼하면 우리 아이는 완전한 가정에서 자라게 될거예요. 하지만 내 애들은 아니죠.

(*Иллюзия Греха* 2001:36)

(7) Но пока у неё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ложить ему новую игрушку, поэтому она решила купить хотя бы фруктовую и конфет побольше. **Если Павлик будет щедро угощать соседей по палате, то, может быть,**

они не пожадничают и дадут ему поиграть их замечательными красивыми конструкторами и электронными штуковинками.

그러나 지금 그녀는 동생에게 새 장난감을 사줄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과일이나 사탕이라도 더 사다주기로 마음먹었다. 만일 **빠벤이 옆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마음좋게 나누어 준다면, 어쩌면 그 아이들이 그들의 레고 장난감과, 전자 장난감을 잠깐 가지고 놀라고 동생에게 빌려줄 지도 모르는 일이다.**

(Иллюзия Греха 2001:137)

(6)과 같이 조건절에 완료상 비과거, 주절에 불완료상 미래형이 사용된 경우와, (7)과 같이 조건절에 불완료상이 주절에 완료상 비과거가 사용된 경우에는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 사이의 시간적 순차성이 쉽게 파악되지만 ((6)에서는 “결혼”과 “결혼후의 상황” (7)에서는 “먹을 것을 주는” 상황과 “그 이후의 친구들과의 관계”) 동사의 완료상이 가지는 총체성(целостность)이나 불완료상이 가지는 상태성이나 지속성은 이렇게 다양한 정도로 표현되는 순차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비현실적 조건문에서 양쪽 절 모두 완료상 과거형이 사용되는 경우가 다른 세 가지 유형의 결합보다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잠재적 조건문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⁸⁾ Dancygier(1998:73-86)는 조건문의 유형에 따라 시간의 순차성의 반영 정도가 달라진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예측적 조건문”⁹⁾의 경우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이 주절에 표현된 상황을 선행하지만, 비예측적인 조건문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건을 비도상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러시아어의 잠재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시간적 순차성이 공고하게 지켜지며, 순차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신 동시성이 두드러지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은 잠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지만, 그 두 상황을 조건절과 주절로 배치시키고 둘 사이에 조건적인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은 현실의 논리이다. 화자는 현실 논리하에서 하나의 상황이 다른 상황과 관계를 맺을 때 이들 두 상황이 동시에

8) Иллюзия Греха(2001)의 466개의 조건문을 조사해본 결과 61개의 비현실적 조건문중 전체의 43%인 26개가 양쪽절 모두에서 완료상 과거형이 등장하며, 172개의 잠재적 조건문중 49%인 84개가 양쪽절 모두에서 완료상 비과거가 등장한다.

9) 그는 가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건문을 예측적(predictive) 조건문으로, 가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문을 비예측적 조건문(non-predictive)으로 불렀다.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예외없이 이들 사이에는 순차성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을 그대로 조건문 구조내에 투영하게 된다. 결국 시간적 도상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의 경우는 현실의 논리가 그대로 화자에 의해 수용되어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3.2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

가설성이 없는 유형의 조건문은 가설성이 있는 유형의 조건문과는 다른 형태의 시간적 도상성을 갖는다. 많은 경우 기술적 조건문의 경우 두 상황사이 에 표현되는 시간적 관계 속에는 순차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조건절과 주절의 상황이 추론의 힘을 빌어 연결되고 있는 다음의 예를 보라.

(8) “я тебе много раз говорила, меня ангел хранит. **Если у меня украли деньги на новый телевизор, значит, мне вообще нельзя его покупать.** Наверное мне суждено было купить такой телевизор, который взорвался бы и загорелся.

내가 여러번 이야기했지. 나를 천사가 지켜주고 있다고.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텔레비전을 살 돈을 훔쳐갔다면, 그것은 내가 텔레비전을 사서는 안된다는 뜻이지. 만일 내가 텔레비전을 살 팔자가 되었어도, 그것은 터져서 다 타버렸을 거야.

(Иллюзия Греха 2001: 19)

이 예문에서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이 완료상으로 표현되었지만, 이러한 완료상의 사용이,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간의 시간적 순차성을 표현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잠재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에서 조건절의 상황이 완료상으로 표현될 경우 순차성이 드러났던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여기에서 부각되는 것은 조건절에 드러난 상황과, 주절에 드러난 상황과의 관계가 보여주는 논리적 타당성이다. 삽입어 *значит*는 이러한 논리적 타당성을 확인시키는 신호로 작용한다.

(9) - Ирочка, у меня завтра запланирован большой поход за продуктами. Вам что-нибудь нужно? **Если Ира приходила с работы, а но ещё не спал, Георгий Сергеевич сочувственно говорил:**

- Садитесь, Ирочка. я вам чайку налью, а вы отдыхайте. Но вообще - то бывало это ничасто.

“이로치까, 나 내일 이것저것 좀 많이 사려는데, 혹시 필요한 것 없나

요?” 만일 이라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지 않고 있으면, 게 오르는 동정어린 눈으로 말하곤 했다.

“여기 앉아요. 이로치까. 내 차 한잔 끓여주리다”. 하지만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다.

(Иллюзия Греха 2001: 19)

예문 (9)에서 “이라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지 않는” 상황과 “게오르기가 그녀에게 말을 하는 상황”사이에는 명확한 시간적 순차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이는 전자의 상황이 상태적(state) 성격을 지니는 것에 기인하며, 이는 주절과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 모두 불완료상이 사용됨으로써 표현된다. 이 맥락에서 부각되는 것은 시간적 순차성이 아니라 반복성이다.

(10) - Да уж сделай одолжение, - кокетливо промурлыкала Вера. -
- Как ты себя чувствуешь?

Он мог бы и не спрашивать. Если женщина с шестимесячной беременностью сияет всем своим свежим личиком и носит сногшибательные наряды, она не может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плохо.

“그럼 제발 부탁이에요” - 베라가 애교스럽게 웅알거렸다.

“당신 지금 기분은 좀 어때?”

그는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었다. 만일 임신 6개월의 여자가 이렇게 싱싱한 얼굴로,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여자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없는 법이다.

(Иллюзия Греха 2001: 19)

예문 (10)은 일종의 “법칙”을 표현하고 있다. 즉 “임신한 여자가 얼굴이 싱싱하고 멋진 옷을 입은 상황”과 “그녀의 기분이 좋은 상황”은 규칙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성은 화자의 반복되는 현실경험에서 연역된 논리로서 탈시간적 성격을 가진다. 여기에서 조건절과 주절 모두에서 탈시간성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수단인 불완료상 현재형이 사용됨에 주목하라.

조건절이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나, 조건절의 상황이 주절의 상황과 비교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도 시간적 순차성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당신이 교황”인 상황과 “내가 중국의 황제”인 상황사이에 시간적 순차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11) - Я папа римский. Я хочу позвонить в Ватикан.

- Если ты папа римский, то я китайский император.

- 나 교황입니다. 바티칸에 전화 좀 연결해 주세요.

- 당신이 교황이면 나는 중국의 황제야.

(Туманова 교수가 필자에게 제시해 준 예에서)

물론 과거사실을 현재의 사실과 대조하는 경우에는 두 상황 사이의 시간적 순차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12) Одной из особенностей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семьи стал возврат к традиционной модели, когда мужчина зарабатывает деньги, а женщина ведёт домашнее хозяйство. Если 10 лет назад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считали, что работать должны оба супруга, то сегодня это мнение разделяют 75% населения.

남자가 돈을 벌 때 여자는 살림을 하는 전통적인 러시아 가족 모델로의 회귀가 현재 러시아 가족의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10년전에 실제로 모든 사람이 부부 모두 일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면, 오늘날 이러한 생각은 인구의 75%만이 가지고 있다.

(Russia 2000: 82)

과거시제와 현재 시제가 명백하게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지시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시간적 순차성이 불가피한 (12)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적 조건문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시간적 순차성이 뚜렷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에서 시간의 순차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비현실적인 조건문이나 잠재적 조건문에서 시간적 순차성이 비교적 뚜렷이 부각된 경우와 정반대의 설명이 필요하다.

기술적 조건문의 조건절에 등장하는 상황들은 현실적인 혹은 적어도 현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비록 그 상황들의 성격은 위의 여러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하지만, 화자가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을 근거로 주절에 표현된 상황을 약하게 단언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조건절의 상황은 주절에 표현된 화자의 단언을 위한 전제의 성격을 지니며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주절에 표현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시간적으로 선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적 조건문에서 등장하는 시간적 도상성은 비현실적 조건문이나 잠재적 조건문과는 다른 유형에 속한다. 비현실적 조건문이나 잠재적인 조건문에서는 현실속에서 표현되는 시간적 순차성이나 동시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차원에서의 도상성이 실현된다고 한다면, 기술적 조건문의 경우는 두 상황을 인식적 차원에서 - 화자의 사고작용의 전개 순서에 따른 - 도상성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조건문을 “내용적 영역의 조건문”과 “인식적 영역의 조건문”으로 구분한 Sweetser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현실적 조건문과 가설적 조건문에서는 시간적 도상성이 “내용적 영역”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반면, 기술적 조건문과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조건문의 경우 “인식적 영역” 내에서 새롭게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 조건문의 경우에 “인식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이나 “인식적 영역”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음을 인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경우들을 설명할 수 있다.

(13) Если студент на лекции не приходит, то он разлюбил этот предмет.
만일 어떤 학생이 수업에 오지 않으면, 그는 그 과목을 싫어한 것이다.

(14) Если кто не уважает родителей, (это значит) он умер.
만일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죽은 사람이나 다름 없다).

(Кулькова 교수가 필자에게 제시해준 예에서)

이들 구문들의 공통점은 조건절에서는 현재시제가, 주절에서는 과거시제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주절에 표현된 상황이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에 비해 선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문들은 Храковский(1996:199-200)가 러시아어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제시한 주절과 조건절의 시상 54개 경우에서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이고, Чемковская et al. (1988:261-278)이나 Шведова (1970:716-719)는 가능한 결합이 아니라고 규정된 유형이다. 심지어 Назикова (1974:77)은 조건절에서 비과거가 사용되고 주절에서 과거시제가 사용될 경우 시간의 순차성이 파괴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3)-(14)의 경우는 시간적 도상성이 뚜렷이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주절에 표현된 상황이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에 비해 시간상 선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예문들은 영어 조건문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15) If it will amuse you, I will tell you a joke.

(Comrie 1986:81)

이 경우에는 조건절에 제시되는 상황인 “농담이 당신을 즐겁게 해주는 상황”과 “내가 당신에게 농담을 하는 상황” 사이의 시간적 관계가 역전되어 있다. Comrie는 이 예문에서 조건절에서 주절로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 시간축 상에서 조건보다 먼저 실현된 결과가 조건의 실현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작용한다고 본 것이다. Traugott(1986:95)은 보통의 조건문에서 S1이 S2에 앞서는 것은 S1이 S2의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지만, 이들 예문들에서는 그 인과관계가 바뀌어서 S2가 S1를 앞설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Comrie와 Traugott 모두 이들 예문들에서는 인과관계의 도상성과 시간관계의 도상성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며 인과관계의 도상성이 시간관계의 도상성을 보상한 경우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Храковский(1996:196-197)는 Comrie가 빠졌던 딜레마가 러시아어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어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 즉 결과가 조건보다 먼저 실현된 것 같은 예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6) Если вы завтра к нам придёте, я испеку к вашему приходу ваше любимое миндальное пирожное;

만일 당신이 내일 우리한테 오신다면, 저는 당신을 맞이하고자 당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아몬드 넣은 만두를 구워놓겠어요.

(17) Если ты будешь заниматься, я выключу телевизор.

만일 당신이 공부를 하실 거라면, 제가 텔레비전을 끄죠.

(18) Если я поеду в Москву, я куплю себе новую сумку.

만일 내가 모스크바에 가게되면, (가기 전에 먼저) 새 가방을 살 것이다.¹⁰⁾

그는 이들 예문들이 결과가 조건에 선행할 수 없다는 우리의 직관에 거스르기 때문에, 표현된 상황이 주절에 표현된 상황에 선행한다는 표준적 해석에 모순되지 않는 새로운 해석을 찾아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것들을 비단언적 조건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¹¹⁾ 따라서 그는 이러한 유형의 조건문은 조건절 앞에 Если я буду знать, что를 부가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10) 이 예문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모스크바에 가면 제일 먼저 새 가방을 사겠다”로 해석하는 경우와, 본문에 필자가 제시한대로 “모스크바에 가는 것이 정해지면, 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무엇보다 새 가방을 사겠다”는 경우가 그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필자의 관심은 후자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11) 그는 이러한 유형의 구문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다.

(a) 조건절 내에 청자가 존재하며, 그는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의 주체이다.

(b) *знай/те, что....., имей/те в виду, что.....*와 같은 명령형과 결합이 용이하다. (c) 화용론적 관점에서 볼 때 조건절은 (화자에 의해 추정된) 청자의 희망에 대한 예절바른 간접적인 질문이다.

- (16') Если я буду знать, что вы завтра к нам придёте, я испеку к вашему приходу ваше любимое миндальное пирожное.
- (17') Если я буду знать, что ты будешь заниматься, я выключу телевизор.
- (18') Если я буду знать, что я поеду в Москву, я куплю себе новую сумку.

물론 (16)-(18)의 예문들은 명제의 내용상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 간의 선후관계가 역전된 것이지, (13)-(14)의 예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양쪽 절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형태의 측면에서까지 역전이 된 것은 아니다.

(13)의 예를 보자. “그 과목을 싫어해야” “수업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현실논리이다. 따라서 “그 과목을 싫어하는” 상황이 조건절에, “수업에 빠지는” 상황은 주절에서 표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13)에서는 반대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절에 표현된 상황의 시제가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의 시제에 선행한다. 하지만, 화자가 제 3자의 심리적 상태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어 있으므로, “그 과목을 싫어한다”는 것은 화자의 추론의 결과이지 사실이 아니다. “어떤 학생이 수업에 빠진다”는 상황이 “그가 그 과목을 싫어할 것”이라는 추론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Храковский 가 이러한 유형의 문장에 “если я буду знать”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도, 이들 문장을 연결해주는 것이 상황과 상황간의 내적 논리가 아니라 상황과 상황 사이에 화자가 투사하는 인식적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13)에 значит이나 혹은 Я думаю, что..., Я считаю, что...를 삽입할 경우 문장은 자연스럽게 해석된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 (13') Если студент на лекции не приходит, он разлюбил этот предмет.
 --> Если студент на лекции не приходит, это значит, он разлюбил этот предмет.
 --> Если студент на лекции не приходит, я думаю, что он разлюбил этот предмет.
 --> Если студент на лекции не приходит, я считаю, что он разлюбил этот предмет.

결국 (13)의 구조가 반영하는 것은 “상황 발생”의 시간적 순차성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판단”의 순차성이다. (13)에서 “판단의 순차성”에 따라 조건절에

표현될 상황과 주절에 표현될 상황이 결정되고, “상황 발생의 순차성”은 시제에 도상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의 예문도 (13)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죽은 후에야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논리는 동사의 시제 형태에 도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와는 반대로 어순은 화자의 인식적 추론의 순서를 도상적으로 반영한다. 사탄이 싸우는 상황을 봄으로써, 그들이 나뉘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며,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을 봄으로써 그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도록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13)-(14)는 현실논리의 순차성과 인식적 추론의 순차성이 서로 같음을 일으키면서 각자의 영역을 어순 및 시제의 조작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를 경우 예문 (15)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가 너를 즐겁게 해 줄 것이라는 판단이 너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겠다는 의도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기술적 조건문의 경우 살펴본 모든 예들에서 상황들 사이의 시간적 도상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기술적 조건문에서 등장하는 시간적 도상성은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들처럼 상황들 간의 발생순서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황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인식적 추론의 차원에 있다. 따라서 전자에서의 순차성을 상황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이라 할 경우 후자에서의 순차성은 인식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도상성은 현실논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의 도상성이라 한다면 후자의 순차성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도상성이라 할 수 있다.

조건절이 가지는 상황이 극도로 축소되어 단지 담화의 유연성을 유지하거나 예의바름을 표현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조건문의 경우에는 시간적 도상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자신의 발화의 적절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주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19) У меня есть фотография, на которой снят наш курс из школы киноактёра при “Мосфильме”. Из 25 человек живы только двое. Все друзья уже ушли из жизни. Если честно, то изредка где-то на уровне подсознания скребётся мыслянка, что осталось в общем-то немного.....Но что же делать?

저에게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모스필름 부설 배우학교의 우리 반이 찍혀있죠. 25명 중 단지 두 명만 살아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죠. 솔직히 말하자면, 때때로 잠재의식 저 어딘가에서 이제 얼

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2001.06.20. “Завещание Глузского”)

조건절의 표현 *если честно*는 이미 속어적(idiom)으로 굳어져 버린 표현으로써, 발화자가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즉 화자가 일방적으로 담화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장치로서,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 사이에는 시간적 순차성 혹은 동시성이 극도로 축소되어 있으며 인식적 차원에서의 시간적 도상성만이 존재한다. 즉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는 상황” 하에서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건문의 가설성이 있는 경우 그 가설성이 높을수록 시간적 도상성이 부각되는 반면에, 가설성이 없는 경우 상황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은 축소되고, 인식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은 점차 부각된다. 결국 가설성을 중심으로 상황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의 정도와 인식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의 정도는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3)-(14)과 같은 비전형적인 예의 경우 이러한 인식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설득력있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4. 인과적 도상성

인과성이 조건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중에서 조건절이 원인을 나타내고, 주절이 결과를 나타내 준다는 언급을 빠뜨리는 경우는 없다는 Dancygier(1998:80)의 언급은 조건문을 이해하는 데 인과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Comrie(1986:80)는 아래와 같은 문장들은 질료적 함언(material implication)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건절과 주절도 단지 적절한 진리치만 가지고 있으면 조건문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20) If Paris is the capital of France, two is an even number.

(21) If Paris is the capital of Spain, two is an odd number.

(22) If Paris is the capital of Spain, two is an even number.

(Comrie 1986:80)

하지만 그는 이러한 관점은 조건문에서 조건절과 주절 사이에 보다 강력한 연결관계를 요구하는 자연언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그 강력한 연결관계는 인과의 관계라 보고 있다. 즉 조건절의 상황이 주절의 상황에 대한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하며, 위 (20)-(22)에서는 그러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조건문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인과문은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두 상황의 진리 여부에 대한 화자의 책임성(commitment)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건문과 구분된다고 본다.

(23) Since you're leaving now, I won't go with you..

네가 지금 떠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24) If you're leaving now, I won't go with you..

만일 네가 지금 떠난다면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Comrie 1986:80)

그의 견해에 따르면 (23)에서 청자가 곧 떠날 것이라는 점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화자는 청자와 같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화자가 책임을 지지만, (24)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23) (24)에서 “내가 너와 가지 않는 것”이 “네가 지금 떠나는 것”에 기인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동일하지 않다. (23)에서의 인과관계가 보다 직접적이고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24)에서의 내포된 인과관계는 간접적이고 상대적이다.

Johnson-Laird(1986:69)은 조건문에서 인과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상황이 다른 상황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5) If the match hadn't been struck, it wouldn't have lit.

(26) If the match hadn't been dry, it wouldn't have lit.

(27) If you've run out of petrol, there's a garage down the road.

(Johnson-Laird 1986:69)

그에 따르면 (27)은 조건절의 상황이 주절의 상황을 야기시킨 경우이고, (28)의 경우는 조건절이 상황이 주절의 상황을 허용한 경우이며, (29)의 경우는 둘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아닌 단순한 유관성만이 존재한다. (27)-(28)을 인과관계가 적용된 경우로 (29)를 인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본 것이다.

Haiman(1986:33)은 조건문에서 조건절의 상황과 주절의 상황 사이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질료적 함언의 관점을 취하는 연구자들이 조건절의 상황과 주절의 상황 사이의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경우의 문장을 조건문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Traugott(1986:297)은 조건문은 결코 원인으로 분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조건문은 원인을 전제하지만, 인과문은 원인을 단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f A then B와 Because A then B 와의 차이는 전자, 즉 조건문에서 A는 B가 참이 되기 위해 유효하다고 추정되어야 하는 배경이나 틀이지만, 후자, 즉 인과문의 경우에는 A는 B를 위한 틀로써 진술된다는 것이다. 인과문은 명제를 단언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Auwera(1986:199)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조건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건문 구조 안에 새로운 결합 논리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합논리로서 충분가설(Sufficiency Hypothesis)을 들고 있다. 즉 명제적 내용인 if p then q는 p가 q에 대한 충분조건이라 것이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조건문에서는 조건절의 상황과 주절의 상황 사이에 인과성이 성립한다. 그러나 그 인과성은 인과문에서 성립하고 있는 단언된 인과성이 아니라, 전제된 인과성이다. 둘째 인과성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문 유형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형의 조건문에서도 조건절의 상황과 주절의 상황 사이에 연관성은 존재해야 한다.

인과성이 개별 유형의 조건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4.1.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

(28) Самолёт Клинтона или Буша стоит в Америке 1 млрд. 550млн. Самолёт Ельцина или Путина - 70млн. долл. Большая разница. **Если бы мне дали такие деньки, как в Америке, то я бы построил не один самолёт, а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클린턴이나 부시대통령의 비행기는 미국에서 15억 5천만 달러 나갑니다. 엘진이나 뿌진 대통령 비행기는 칠천만 달러 나가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저에게 미국에서 주는 것처럼 돈을 주었다면 저는 한 대가 아닌 수십 대의 비행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2001.05.06. "П. Бородин: Я грешен, но не виноват")

(29) Западные эксперты обвиняют россиян в завышенной самооценке. Инженер не пойдёт работать шофёром – гордость не позволит. На самом деле гордость здесь ни при чём. **Если бы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ить за такую же работу в 3-4 раза больше, притязаний было бы меньше.**

서구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고 비난한다. 기술자는 운전사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것이다. **만일 동일한 일을 해서 3-4배나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없다면, 요구사항들은 훨씬 적어질 것이다.**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2001.06.06. “Безработная страна”)

예문 (28)에서는 조건절과 주절의 상황 모두 완료상이 사용된 경우로서 시간적 순차성이 뚜렷하며, “미국처럼 돈을 주었을” 상황은 “수집대의 비행기를 만들었을” 상황의 원인이 됨으로써 인과성이 뚜렷이 부각된다. (29)의 예문은 조건절과 주절의 상황 모두에서 불완료상이 사용된 경우로서, 시간적 순차성은 상당히 약화되어 동시성이 두드러지지만,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은 주절에 표현된 상황의 원인이 된다. 결국 비현실적인 조건문의 경우는 인과성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시간의 순차성이 약화되어 동시성이 두드러지는 경우에도 인과성은 그대로 지켜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과성은 잠재적 조건문에서도 발견된다.

(30) Экзамены сдал отлично, отстрелял из всех видов табельного оружия и получил звание лейтенанта. Перед всем строем поклялся: **“Если не смогу выполнять обязанности офицера так, как это положено, уйду в отставку.”**

시험은 훌륭하게 합격했고, 지정된 모든 총기도 다 쏘아 본 후에 중위 계급장을 받았다. 모든 병사들이 도열해 있는 앞에서 서약도 했다. **“만일 주어진 장교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대하겠습니다”**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2001.06.06. “Жизнь лейтенанта”)

(31) **Если же вместо этого ты будешь шарить у него**

по карманам, никакого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контакта у вас не будет.

만일 그 대신 당신이 아이의 주머니를 뒤진다면 당신과 아이 사이에는 어떠한 감정적인 교감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2001.05.03. “Ребёнка нельзя запугать, потому что он бессмертен”)

(30)은 조건절과 주절 모두에서 완료상 비과거형이 사용된 경우이고, 표현된 두 상황 사이의 순차성이 쉽게 이해되지만, (31)의 경우는 주절에 표현된 상황이 상태적(state)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순차성은 보다 약화되고 동시성이 부각된다. 하지만 인과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 예 모두에서 조건절의 상황은 주절에 표현된 상황에 대하여 원인의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즉 (30)에서는 “장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대를 하는” 상황의 원인이 되고, (31)에서는 “아이의 주머니를 뒤지는 것”이 “아이와 감정적 교감을 잃는” 원인이 된다. 이들 예에서 잠재적인 조건문에서도 조건절의 상황과 주절의 상황 사이에 인과성이 뚜렷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시간의 순차성이 잘 드러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간의 순차성이 드러나지 않는 유형의 문장에서도 인과성은 뚜렷하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4.2.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의 경우에는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 사이에 인과성이 상당히 약화되어 나타난다.

(32) Секрет есть. Правильно подбирать репертуар. Банальный пример из спорта: **если ты бегун на дистанцию 100 метров, то следует держаться этой дистанции. Если ты ещё молод, можешь, конечно, попробовать “взять” 1000 метров.**

비밀이 있죠. 레파토리를 잘 선택하는 겁니다. 스포츠에서 평범한 예를 들어보죠. 만일 당신이 100미터 달리기 선수라면, 그 거리를 견뎌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젊다면 - 물론 1000미터도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거죠.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2001.05.08. Чечилия Бартоли - гостя из будущего)

(33) Во-первых, в Москве ничего не делается без генплана. Во-вторых, ничего из серьёзных, сооружений не делается без рассмотрения на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ом или общественном совете. **И если какие-то издержки получатся, значит, это ошибка.**

첫 번째로 모스크바에는 총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축물이라면 도시건설 위원회나 일반위원회의 검토가 없으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비용이 수령되었으면 이것은 실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2001.05.08. “Предлагается гараж...под Москвой-рекой”)

(34) И волевым усилием с биологической зависимостью справиться нельзя. Некогда не следует обращаться к шарлатанам. **Если кто-то предлагает за три минуты или за шесть часов вылечить от наркомании, только денег надо заплатить побольше, знайте, - это шарлатаны.**

정신력으로 생물학적 의존성을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결코 사기꾼에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3분이나 혹은 6시간만에 약물중독에서 완치시키고, 돈만 조금 더 내면 된다고 제안하면, 알아두십시오.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2001.05.08. Ребёнка нельзя запугать, потому что он бессмертен)

(32)에는 일반적인 상황, (33)는 추론, (34)는 법칙과 같은 상황이 표현되어 있다. 이들 예문들에서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간의 인과성은 약화된다. 이들 예문에서 인과성은 Sweetser가 지정한 인식적 영역의 차원에 보다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을 발화할 경우 주절에 표현된 상황을 발화할 정당성과 근거가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들 예문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절에 화자의 판단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32)의 경우에는 “그러한 거리를 견뎌내야 하고” “1000미터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다는” 화자의 판단이, (33)에서는 “비용수령이 실수임에 틀림없다는” 판단이 (34)에서는 “그 사람이 사기꾼임에 틀림없다는 판단”이 표현된다. 그리고 조건절에 등장하는 상황들은 화자로 하여금 그러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일종의 원인의 역할을 한다. 다만 여기에서 성립되는 인과관계는 현실논리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경험과 그를 바탕으로 한 인식차원에 자리잡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술적 조건문들의 예들에서 상황들간의 인과성은 상당히 약화되고,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들을 연결해주는 화자의 인식의 차원에서 인과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을 이해하거나, 안다는 것이 주절에 표현된 상황을 발화하거나, 혹은 주절에 표현된 결론을 내리는 데 근거가 된다.

이러한 인식적 관계는 발화의 목적이 발화의 원활한 흐름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조건문의 경우에는 극대화된다.

(35) Я клянусь вам, что лично знаю очень серьёзных людей, готовых, **если Бог пошлёт удобный случай, “разорвать” певца Никиту.**

저는 만일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만 주신다면 가수 니키타를 꺾을 준비가 다 되어있는 매우 진지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2001.06.20. “Роман с лимузином”)

(35)의 예에서 관용어구적 표현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는”은 현실 상황의 반영이나 가설적 상황의 제시라기 보다는 단순히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는 의례적인 어구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니키타를 꺾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다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청자에게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게 해준다. 이 예문에서 조건절은 주절에 표현되는 화자의 판단이 가지는 현실적 과격함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32)-(35)의 예문들에서 인과성은 두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지 두 상황에 대한 현실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적 차원의 인과성을 인정한다면 Sweetser(1990), Dancygier (1998)등이 메타적 조건문이라 부른 다음과 같은 조건문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조건문은 화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피력하는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으로써, 필자는 이들 예문들이 약한 단언을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조건문의 중요한 유형중 하나라고 본다.

(36) Если муж всегда глава семьи, то жена его душа.

만일 남편이 항상 가장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그의 영혼이다.

(37) Если в Москве мы отдохнули хорошо, то в Сочи мы вообще не отдыхали.

만일 모스크바에서 우리가 잘 쉬었다고 한다면, 소치에서는 우리는 잘 쉬지 못하였다.

(38) Если я был хорошим плотником, я был плохим моряком.

만일 내가 목수로 훌륭했다고 한다면, 나는 선원으로서는 형편없었다.

(Кулькова 교수가 필자에게 제시해준 예에서)

현실논리차원에서는 이들 예문에서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 사이에는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의 영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36), 모스크바에서 우리가 잘 쉬었기 때문에 소치에서 잘 쉬지 못한 것은 아니고(37), 내가 목수로 훌륭했기 때문에 선원으로서 형편없었던 것은 아니다(38). 하지만 그러나 인식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들 사이에는 인과성이 존재한다. 남편을 가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내를 그

의 영혼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36), 모스크바에서의 휴식을 훌륭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소치에서의 휴식을 형편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37), 나를 훌륭한 목수로 평가했기 때문에, 선원으로서의 나를 형편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38). 이들 예문들도 앞서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주절에는 화자의 판단이 표현되어 있고, 조건절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 전제조건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화자로 하여금 주절에 표현된 판단을 내리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그러한 작용은 위 예문들에서 보듯이 현실논리와 두 상황들 사이의 명제적 내용간의 차원이 아닌, 상황들에 대한 화자의 인식차원에서 발생한다.

이상에서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간의 도상성을 시간성의 측면과 인과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시간적 도상성의 경우,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의 경우에 현실논리의 차원에서 시간적 도상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되는 반면에,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인 경우에는 인식적 차원에서 시간적 도상성이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과성도 조건문 내에서 가설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이, 상황과 상황사이의 현실 논리차원에서의 인과관계를 보인다면,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의 경우는 상황과 상황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적 차원에서의 인과관계를 보인다. 즉 조건절의 상황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주절에 표현되는 상황을 발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이든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이든 화자에게 인식적 추론이 요구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전자의 경우 인식적 추론이 상황을 가설적인 세계에 배치시키는 데 이용된다고 하면, 후자는 현실세계의 상황들을 다양한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재설정하는데 이용된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인과성과 쉽게 결합되는 조건문이라는 통사구조를 이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도상성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Маринина, Александра(2001) 『Иллюзия Греха』, Москва: Эксмо-Пресс Библия

Rodimkina, Alla., Landsama, Neil.(2000) 『Russia 2000』, St. Petersburg.

2. 2차 자료

Barnetová, Vilma., Běličová-Křížková, Helena., Leška, Oldřich., Skoumalová, Zdena and Straková, Vlasta.(1979)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Praha. Academia Praha.

Гловинская, М.Я.(1982) 『Семантические типы видовых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и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а』, Москва: Наука

Дротбинас, Л.С.(1958) “Бессоюзные услов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Русский язык в школе 6』, 17-21

--- (1959) 『Услов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в русском и в литовском языках』, Автореф. дисс.....канв. филолог. наук, Вильнюс.

Земская, Е.А., Китайгородская, М.В. и Ширяев, Е.Н.(1981) 『Русская разговорная речь. Общие вопросы,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синтаксис』, Москва: Наука.

Золотова, Г.А.(1982)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аспекты русского синтаксиса』, Москва: Наука.

--- et al.(1998)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МГУ.

Ляпон, М.В.(1986) 『Смысловая структура слож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и текст: к тифологии внутритекстовых отношении』, Москва: Наука.

Назикова, Е.А.(1974) “Синонимия сложных предложении, выражающих условно-след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Русский язык в школе』, (1) 77-83

Онипенко, Н.К. “Идея субъектной перспективы в русской грамматике”, 『Русистика сегодня』, No. 3, 74-83.

Храковский, В.С.(отв. ред.)(1996) 『Теория функциональной грамматики: лока- тивность, Бытийность, Посессивность, Обусловленность』,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Наука.

- Чтемковская et al.(1988) 『Учебник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обучающихся на нефилологических факультетах вузов СССР гуманитарного профиля』, Москва: Русский язык
- Шведова (отв. ред.)(1970) 『Грамматика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Наука.
- Akatsuka, N.(1991) "Dracula Conditionals and Discourse." In Georgopoulos --- (1997) "Negative Conditionality, Subjectification, and Conditional Reasoning" In Athanasiadou et al. (eds.) 『On Conditionals Agai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Athanasiadou, Angeliki and Dirven, René.(1995) "Typology of if-clauses", in E. Casad (ed.) 『Cognitive Linguistics in the Redwoods』, Berlin: Mouton de Gruyter.
- (1997) "Conditionality, Hypotheticality, Counterfactuality". In Athanasiadou et al. (eds.) 『On Conditionals Agai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Auwers, J.V.(1986) "Conditionals and Speech Acts." In Traugott et al. (eds.) 『On Condit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7) "Conditional Perfection.", In Athanasiadou et al. (eds.) 『On Conditionals Agai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olinger, D.L.(1977) 『The Form of Language』, London: Longmans.
- Bybee, J.L., Pagliuca, W. and Perkins, R.D.(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Comrie, Bernard(1986) "Conditionals: a Typology." Traugott et al. (eds.) 『On Condit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cygier, Barbara(1998) 『Conditionals and Prediction: Time, Knowledge, and Causation in Conditional Constru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 Ferguson et al.(1986) "Overview", In Traugott et al. (eds.) 『On Condit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berg, J.H.(ed.)(1963)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1986) "The Realis-Irrealis Continuum in the Classical Greek Conditional" In Traugott et al. (eds.) 『*On Condit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cking, J.F.(1996) 『*A Comparative Typology of Conditionals in Russian and Macedonian*』, University of Toronto Ph.D. dissertation.
- Haiman, J.(1978) "Conditionals are Topics" 『*Language*』 54:564-589
- (1980) "The Iconicity of Grammar: Isomorphism and Motivation" 『*Language* 56』 : 515-540
- (1983) "Paratactic If-Clause" 『*Journal of Linguistics* 7』 : 263-281
- (1985) 『*Natural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kobson, Roman(1957/1971)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In 『*Roman Jakobson. Selected Writings. Vol. II. Word and Language*』, The Hague: Mouton.
- Johnson-Laird, P.N.(1986) "Conditionals and Mental Models" In Traugott et al. (eds.) 『*On Condit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önig, E.(1986) "Conditionals, Concessive Conditionals and Concessives." In Traugott et al. (eds.) 『*On Condit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W.)1985) "Observation and Speculation on Subjectivity" In Haiman, J. (ed.) 『*Iconicity in Syntax*』, Amsterdam: John Benjamins.
- (1997) "Generics and Habituals" In Athanasiadou et al. (eds.) 『*On Conditionals Agai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earle, J.(1975) "Indirect Speech Acts." In Cole P, Morgan J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Academic Press, New York.
- Silva-Corvalán, Carmen.(1995) "Contextual Condi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poder and deber in Spanish.": In Bybee et al (eds.)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1986) 『*Relevance*』, Oxford: Basil Blackwell.

- Sweetser, 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6b) "Mental Spaces and the Grammar of Conditional Constructions." In G. Fauconnier and E. Sweetser (eds.), 318-33
- Traugott E.C.(1985) "Conditional Markers." In Haiman, J. (ed.) 『*Iconicity in Syntax*』, Amsterdam: John Benjamins.
- Traugott E.C., A. Reilly and C.A. Ferguson.(1986) 『*On Condit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7) "Unless and but conditionals: a Historical Perspective." In Athanasiadou et al. (eds.) 『*On Conditionals Agai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Ziegeler, Debra.(2000) 『*Hypothetical Modality: Grammaticalization in an L2 Dialect*』,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bstract**Conditionals and Iconicity****Kim, Jung-II**

The study explores inter relationship between conditionals and iconicity. So far the existence of iconicity in conditionals has been mentioned, but the nature of the iconicity has been neglected. In conditionals two different kinds of iconicity - temporal iconicity and causal iconicity - are observed. In conditionals with hypotheticality temporal iconicity (sequentiality or simultaneity) between two situations is reflected in the real level of logic. In contrast, in conditionals without hypotheticality temporal iconicity is expressed in the cognitive level.

This pattern of reflection of temporal iconity can be applied to the causal iconicity. In conditionals with hypotheticality causal iconicity shows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wo situations in the real level of logic. That is direct reflection of reality. But in conditionals without hypotheticality shows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wo situations in the cognitive level. To understand the situations expressed in the protasis becomes a premise to get the validity to express the situations of apodosis..

In any case speaker's cognitive inference is equally needed. While in conditionals with hypotheticality, speaker's cognitive inference is used to place two real situations in the alternative-hypothetical world, in conditionals without hypotheticality speaker's cognitive inference is need to construct new cognitive relations between situations. Conditionals, which can be connected easily with sequentiality, simultaneity, causality on the one hand can be used by speakers to reflect existent temporal, causal relationship of real world, on the other hand to build new cognitive temporal, causal relationship.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2. 3. 15
논문심사일: 2002. 3. 18~2002. 4. 6
심사완료일: 2002. 4. 20

필자약력(김정일)

소 속: 경북대 강사
출 신: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전 공: 러시아어 화용론
대표논문: "러시아어 Если 조건문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대표저작: